

##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7,

### 애가 3: 17-23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7회 애가 3:17-23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애가 3장부터 시작해 16절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17절에서 24절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속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죄와 관련된 개인 기도 애도의 보고인 간증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7~24절에서는 그 애도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과 멘토가 배운 교훈, 특히 희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간증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멘토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실제로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40절까지는 그것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시험하고 검토해 봅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중을 매우 염두에 두고 있으며 회중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들이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정점에 이른 비극 이후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근거로 멘토 자신의 이전 개인적인 경험을 다룬 이 증언에 대해 듣고 매우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간증에서 멘토가 현재와 관련된 오래된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들에서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과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와 같이 현재 시제 대신 과거 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새로운 섹션에서 멘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후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재평가하고 싶어합니다.

그가 이전에 말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부분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의 틀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그의 경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매우 분명하게도 17세부터 20세까지는 자신의 증언과 매우 일치하는 부정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초기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에 그는 그의 애도가 뒤따랐던 것과 똑같은 부정적인 노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 경험에서 겪었던 일련의 손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부족합니다. 17절, 내 영혼이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나는 내 영광과 내가 주님께 바라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손실이었어요.

두 번째 손실은 행복이 없거나 NIV에서는 번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실제로 좋은 것,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단어의 중요성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뒤집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행운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는 그 슬픈 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들어갔던 다른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도, 샬롬도, 만족스러운 삶의 온전함도, 좋은 일도, 행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실은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아니면 NIV에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한 가지 의미는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게 여기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내 기대 수명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미래의 내 삶에 대한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사실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내린 우울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께 바랐던 모든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기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같았고, 그는 슬픔에 잠긴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이러한 기대의 사업은 슬픔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실은 항상 기대의 상실과 전망의 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차원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정적인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과 20절에서 이런 슬픈 맥락을 계속합니다. 나의 고난과 집 없음에 대한 생각은 썩과 쓸개입니다.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내 속에서 눌러지나이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이미 애가서에서 앞부분에서 만난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합니다. NIV에는 나의 고난과 방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종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7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같은 쌍의 단어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난과 방황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슬픔의 시기에 괴로워할 때 어떤 것에도 안주할 수 없다는 불안의 심리학적 용어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나쁜 일에서 또 다른 나쁜 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부분적으로 회중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은 유다에 남겨졌고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과 방황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멘토가 자신의 부정적인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반복되는 매우 많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썩과 쓸개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그가 겪었던 재난, 그가 겪었던 위기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는 앞서 15절의 애도 간증이 끝날 무렵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를 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나를 썩으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썩이 쓴맛이 나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을 위장까지 올라 목까지 올라오는 위산 역류인 담즙과 결합시킵니다. 아, 정말 쓰라린 경험이군요. 목구멍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 고통의 결과로 느끼는 감정적 고통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내 영혼이 계속 생각하고 내 속에서 억눌립니다. 열중하고 강박적으로 일련의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고 있으며,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더 남아 있다. 지금까지 회중은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간다. 그는 긍정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22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망, 고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 일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회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히 희망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흥미롭고 회중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RSV에는 21절 끝에 콜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희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상처를 넘어 치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아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해가 떴고 모든 것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니, 그도 똑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의 외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 있고 정신과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절망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애도의 증언의 앞선 모든 부분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그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통의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며,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는 회중의 관심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는 신학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있어? 자, 이제 이 첫 번째 조항에 관해 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보고 애도의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애도는 아니었지만 이후 보도된 바 있다. 실제로는 실제 애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이었습니다. 위기에 대해 말하는 탄식 기도에는 신앙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멘토가 한 일은 긍정적인 요소를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별도로 두고, 이러한 긍정적인 확신은 부정적인 말의 공세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6편 5절과 같은 시편을 볼 수 있는데, 4 절에는 주의 종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높이오니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애도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는 이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가 풍성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니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관용을 베푸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과 7절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것은 개인적인 애도의 끝에서 나오며, 회중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구원할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음의 확증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편 25편과 7절에서 시편 기자가 가져온 기도하는 간구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내 청년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앞의 두 시편 중 하나에서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선이 한 쌍으로 혼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애가 3장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과 1절에서 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에 따라, 당신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언급하는 믿음과 간구에 대한 확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고서, 이 계속 보고서에는 멘토의 이전 경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태도 사이의 대조를 지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성찰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성을 넘어선 움직임, 그 자신의 움직임, 멘토 자신의 움직임. 22절의 첫 번째 줄에 본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NIV는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을 매우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없는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례가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는 이 때문에 이탤릭체로 표기했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매우 모순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갑작스런 우리로의 전환입니다.

그는 다음 40절까지 우리와 우리에게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의 한 요소이며 회중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증거를 다시 살펴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줄과 같이 다르게 표현한 두 가지 고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하프 라인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의 대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실의 관점에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참은.

실제로는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변함없는 사랑은 실제로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음, 그것은 확고한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신학 용어의 NRSV 버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헌신,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NIV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는 히브리어 추상 명사의 복수형이 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수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따온 것인데, 실제로는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는 연민의 행위입니다.

NIV는 실제로 그의 동정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민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인 복수형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연민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형은 매우 많이 선택되며 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행위가 있고, 여기에는 연민의 행위가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변함없는 사랑의 행위가 있고, 또 다른 연민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행위는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글썬요, 이것은 신학적 진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멘토는 많은 시편에서 그러하듯이 이 신학적 요소를 생각함으로써 안도감을 찾았고 축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넘어선 미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부정적인 과거가 그의 길의 끝은 아니지만, 그 너머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는 영속성이 있다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진노와 진노라는 단어를 앞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의 분노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응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멘토는 이러한 속성의 영속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겪고 있는 죄책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속성, 변함없는 사랑과 연민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22절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회중은 놀란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난 생존자 다. 난 생존자 다. 이제 그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 죽은 자 같이 흑암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에게 문자 그대로 장례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에 관한 전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습시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깨어나고 있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존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매우 자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과 159절에서는 무엇을 읽게 됩니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내 생명을 지켜 주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내 생명을 지켜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 그는 반쯤 죽었으나 반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반쯤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컵은 반이 비어 있었지만 그것은 반이 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밝은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난 생존자 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는 39절에서 그것을 회중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위 공격, 점령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아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 동지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숨을 쉬는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죄의 형벌을 불평하리이까? NIV는 비슷하지만 아마도 이해하기 더 쉬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었지? 39절입니다. 산 자가 자기 죄로 형벌을 받을 때 왜 불평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는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그곳 회중에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아 있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기초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서 얻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모든 것은 신학적, 긍정적인 신학적 용어들이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글썄, 학자들은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출애굽기 34장과 6절을 생각나게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리고 22절에 사용된 모든 어휘는 출애굽기 34장과 6절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자비, 긍휼, 출애굽기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며 신실함입니다. 동일한 용어 클러스터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자비, 신실함.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구가 인용될 때 여기에 상호텍스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가 인용되면 텍스트에 대한 참조뿐만 아니라 문맥에 대한 참조도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제발, 제발. 끔찍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래,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의 모범을 더 보여 주겠다. 따라서 출애굽기 34장과 6절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경험에 따르면 기원전 586년에 이르게 된 형벌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신명기 28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죄의 요소인 현시에서 더 일찍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멘토의 증언은 자신의 경우에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과 6절에 이런 위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금송아지 숭배 이후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스스로 파악했고, 이 오래된 텍스트를 그와 관련된 것으로 기념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22절에서 23절까지에서 대명사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야훼를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갑자기 스위치가 생겼네요. 갑자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러 옵니다. 그는 이전에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탄식조차도 그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3자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나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절, 그 구절의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당신의 신실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찬송가에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주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1920년대에 작곡된 찬송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게 쓰여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스럽고 강렬한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노래합니다.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이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 찬송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내 생각엔 여기 텍스트를 매우 남용하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매우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이 다양한 삶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Walter Brueggemann의 발견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생활 환경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설교한다면 삶의 환경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삶의 상황이 전제되는가? Brueggemann은 시편을 서로 구별하는 세 가지 생활 환경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꽤 좋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인생은 꽤 좋고 불평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일들이 잘못되긴 하지만 인생은 꽤 괜찮습니다. 정위.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오리엔테이션 시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시편의 거의 절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 감각 상실에 빠졌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 65편은 방향 감각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건 꽤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축복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시편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구원, 이 구출, 방향 감각 상실의 형태로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rueggemann은 계속해서 방향 전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방향 감각 상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방향 감각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특히 추수감사절 시편에서 사실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그룹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신 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과 비탄의 계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방향 감각 상실의 계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암울하고 위기의 경험에서 벗어났으며, 거기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계절이 바뀌었고, 오리엔테이션의 계절이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다.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과 겨울, 봄과 추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위의 경로를 따라 모든 자연과 결합하여 당신의 크신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가 찾아오네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지속되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응원하고 인도하는 당신의 소중한 존재.

오늘의 힘과 내일의 밝은 희망. 만 명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리엔테이션의 맥락에 있으며, 그 텍스트를 완전히 오용합니다. 애도 상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 예배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축하입니다. 반면에 그 회중에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인식되고 인식되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 환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의 신실하심이 위대하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컨텍스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탄이 없어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방향 감각 상실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명사의 전환, 즉 당신의 신실함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22장과 23장의 이 두 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부한 구절입니다. 그의 두 번째 생각이다.

처음의 암울한 생각 이후에는 위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자리를 찾은 애도의 소리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이제 그는 선을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25절, 26절, 27절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할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자신이 생존자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사실 그는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의 과정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마무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애도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운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느껴지지만,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2장과 23장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매우 슬퍼했고, 그에게는 정말로 그를 슬프게 하는 신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주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그들의 온 몸이 성공을 반향하는 것도 섭리의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가능한 한 훌륭한 신자였지만 생활은 그에게 끔찍했고 몹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섭리의 문제를 생각하며,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거의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의 멸망할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멸하였음으로다. 그리고 그는 내가 종일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불공평.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생각하는데, 이것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전환점에 이르렀고 여기에 애가 3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당신의 자녀를 배신했을 것이고, 나는 '글쎄, 나는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했을 것이고, 아, 어쩌면 그들 역시 믿음을 잃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이 노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에게서 단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최후의 운명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축제에 갔다.

그는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 축제 예배에 참석했으며 아마도 랍비 합창단이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결국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 부르는 놀라운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최종 운명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암울한 하나님보다는 미래의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그래서 이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애도에서는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침략, 포위, 기아 등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의 위기는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선물로서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한 일종의 해저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좋고 더 강한 것으로 성장할 은사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은사였으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원 신생아실 중환자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같은 미숙아를 보러 가곤 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목사님을 방문하여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미숙아를 방문하고 그의 요람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발달하지 못한 폐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간호사는 어린 존의 진전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아기 옆에서 기도할 때 꼭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대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있는 곳엔 희망이있다. 이것이 멘토가 도달하는 요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이 고려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도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이 두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죄를 징벌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불길한 배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약속이 담긴 출애굽기 34장과 6절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멘토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전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시온 신학, 그 영원한 신성 왕조, 아, 예,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오, 지금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회중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사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있어요.

네, 뭔가 있어요. 여기서는 멈추지 않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7회 애가 3:17-23입니다.